

삼성 앱센터서 대박앱 '바다드럼' 개발 나주중 2년 노주영군

“세계 주도하는 IT기업 CEO 될래요”

하루 3~4시간 자며 연구 몰두
다운로드 2만7천회 돌파 화제

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2학생이 허료 서울로 상경해 삼성전자가 운영 중인 오션(Ocean)센터를 방문, ‘바다드럼’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해당 ‘앱’은 삼성앱스에서 다운로드 2만7000회수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나주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노주영(15)군으로 노군은 평소 컴퓨터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10대 청소년 이었다.

하지만 평소 사용 중이던 스마트폰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관심이 많아 우연히 인터넷 서핑 중에 삼성전자의 ‘앱’개발 지원센터인 ‘오션’의 개관소식을 접하게 됐다.

노군은 “자신의 상상력에 불을 지핀 결정적 순간이었다”며 “당장이라도 삼성전자 앱 개발센터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



난 1월 겨울방학 기간 중 나 허료 상경해 물어물어 강남구 삼성동 오션센터를 찾게 된 노군의 3박4일간의 좌충우돌 ‘앱’ 개발 사연이 시작됐다.

노군은 “처음부터 타악기인 ‘드럼’을 스마트폰용 앱으로 개발할 생각은 없었다”며 “그곳에 상주하는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구상하던 중 드럼을 개발목표로 설정

했었다”고 말했다.

처음 4일간은 센터 휴게실에서 하루에 3~4시간만 차면서 연구에 몰두했고, 이후에는 앱 개발 센터개발자들을 통해 정식 교육을 2주간 받게 됐다.

노군은 이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이나, 지식 등을 많이 들었다”며 “잘 끝이 없어서 그 곳에서 계속 지내면서 그 날 배운 것들을 조조씩 응용해 ‘바다 드럼(Badadrum) 앱’을 완성 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노군이 개발한 앱인 바다드럼은 화면에 보이는 가상 드럼을 두드리면 그에 따른 경쾌한 소리가 나는 어플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운영체계인 ‘바다OS’가 탑재된 휴대폰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노군은 이번 앱 개발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노군은 “평소 간단히 생각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은 개발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컴퓨터도 열심히 하는 만큼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 할 후 IT분야의 선두기업 CEO가 되는 꿈이다”고 아무진 포부를 함께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정신 교수 김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장 선출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정신 교수(진료처장)가 경남 양산 통도 환타자 콘도에서 개최된 제10차 대한김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 학술 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그간의 뛰어난 학술 업적과 활발한 학회 활동을 인정받아 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 남구자원봉사센터 전국 최우수 평가

광주 남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기수·사진)가 2011년도 전국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지난 2001년 7월 개소한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남구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관리,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 홍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해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와 노인 일자리 사업, 클린 남구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점도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사진)가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2011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해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북구는 우수기관 수상자에 대한 사전점검·정비, 재난관련 사회단체 교육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북구는 지난 5월에도 ‘201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속

▲임영재·이현숙씨 장남 지순 군 김삼선(광주북부서 교통사고 조사계장)·이명숙씨 장녀 희원양 =12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 서을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누벨바그씨작, 신부족 피로연 26일(토) 오후 5시 30분 광주 서구 농성동 페트리어트웨딩홀 2층 컨벤션홀.

▲김용진(건설업)·이성순씨 차남 율근 장영태(경다운 새마을금고 이사장·전 광주시 의원)·황희자(전 교사)씨 장녀 은영(디자이너)양=27일(일) 낮 12시 꿈의 궁전 웨딩홀 1층 애메랄드홀.

▲김의신·박금자씨 차남 허준군 장봉조(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송경순씨 차녀 수영양=27일

종친회

▲김녕김씨 광주시 종친회(회장 김형만) 정기총회=25일(금) 오후 6시 호남동 미송식당 011-611-456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 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족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족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모집

▲이회승유치원=친환경고급자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채 3차 아파트 옆 062-367-0851~3.

▲2012학년도 살레시오초등학교 신입생=원서교부 : 18일(금)~12월 1일(목), 교부장소 : 학교 수위실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대교문화상 받는 ‘장콩 선생님’ 함평고 장용준 교사

“바른 삶 가르치는 게 교사의 참 사명”

역사책 인세 일부 사회 환원

제자 돋기 ‘사랑마을’ 모임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23년째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의 꿈을 가꿔온 함평고등학교의 장용준(49)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장콩 선생님’으로 통한다.

키가 작다고 제자들이 불여준 별명이지만 이 별명은 이제 학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평소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장 교사는 ‘장콩 선생님과 함께 묻고 답하는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등 7편 이상의 청소년용 역사책을 펴냈다.

장 교사는 쓴 책들은 우수 도서로 선정되는 등 서점가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했으며 그는 저서 인세의 10%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는 또 도서관 사서를 자청, ‘독서 마라톤대회’를 만들고 책 1만쪽을 읽는 학생에게 ‘완주 증명서’를 나눠주며 자발적인 독서 열풍을 이끌었다. 이런 활동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우수 사례’로 선정돼 전국 20여



그는 “28세에 교단에 선 이후 10년 간 수업 잘하고 싶은 욕심만으로 끌려왔는데 마흔살 무렵이 되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존경해 교사가 되기를 꿈꿨다는 장 교사의 좌우명은 ‘더불어 함께 살자’와 ‘배워서 남주자’이다.

장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교육은 여전히 옛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가 할 일은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문화재단(이사장 강영중)은 22일

장 교사를 비롯해 미국 코리아카데미 메리 코너(73) 이사장과 크리스틴 바흐문(57) 인도네시아 교수 등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헌신해 온 교원 등 10명을 올해 제20회 눈높이교육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금 2천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29일 오전 10시30분 관악구 보리매동 눈높이보리매센터에서 열린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나주署 강력 2팀 ‘베스트 수사팀’ 선정

3분기 강도·강간·절도 18건 해결 23명 검거 성과



나주경찰서(서장 박병동) 수사과 강력 2팀이 최근 지방경찰청 3분기 수사활동 평가에서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됐다.

나주경찰서 강력 2팀은 3·4분기 형사활동 평가결과 강도 2건을 비롯해 강간·절도 등 18건을 해결, 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병동 서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강·절도범 단속 등 민생 치안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다스테크, 미얀마·인니 치과의사 초청 국제 임플란트 연수



치과의료기기 개발업체인 (주)다스테크(대표 이용섭)는 최근 제4차 국제 임플란트 연수회를 개최하고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치과의사 등 19명을 초청, 선진의료기술 실습과 회사 견학을 실시했다.

국립공원의 야생화

습지서 자란 곤추 뺀은 줄기, 밝은 자줏빛 꽃